

장수군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 무주군, 벼 우수품종 가린다

‘과수’·‘축산·임업’·‘채소·특작·화훼’·‘식량작물’ 부문 4명

장수군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장수군 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군은 △과수 △축산·임업 △채소·특작·화훼 △식량작물 4부문에 박정환 씨(장계면, 72세), 육관수 씨(산서면, 72세), 한동근 씨(장수읍, 64세), 한병목 씨(천천면, 62세)를 각각 선정했다.



과수부문 수상자인 박정환 씨는 약 14년간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초기 전문 기술이나 기반 시설이 취약하였음에도 장수군 사인머스켓 포도 농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며 우수품종 보급에 앞장서 왔다. 또한 소비자 선호 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 등 자극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도의 규모화에 힘써 장수군의 안정적인 과수 작물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등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축산·임업 부문 수상자인 육관수 씨는 2015년~2016년까지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장수군 축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에 이바지했으며, 장수 한우 브랜드 활성화 등을 통해 장수 관내 한우농가의 단합과 선진 축산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았다.

채소·특작·화훼 부문 수상자인 한동근 씨는 1980년 4-H활동을 시작으로 38년간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5년 장수군 토마토 작목반을 조직, 토마토 농가의 관수시설, 토양개량에 따른 심토파쇄기를 도입하는 등 장수군의 토마토 재배기술 및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수경법을 도입해 토마토 농가의 인건비를 절약

채종포 생산 ‘참동진 벼 평가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17일 안성면 참동진 자율교환 채종포에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관계자, 그리고 관심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동진 벼 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는 자율교환 채종포 견학과 추진실적 보고 후 ‘참동진 벼’와 ‘신동진 벼’ 품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신동진 벼’와 ‘참동진 벼’ 두 품종을 동시에 전시해 관심 농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이용기 팀장은 “참동진 벼가 비나 바람에 쓰러지거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신동진 품종보다 훨씬 강하다”며 “이번 평가회가 참동진 벼의 우수성을 알리고 품종에 알맞은 재배와 병충해 방제 기술 지도를 병행하는 기회도 돼 안정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참동진 자율교환 채종포’는 2024년부터 신동진 품종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에 따라 신규 매입 품종 참동진의 정부보급종 부족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우량종자 공급 및 고품질 벼 증자 생산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현재 1,772농가에서 840ha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채종포 운영 외에도 벼 무인공동방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규전입자 대상 ‘슬기로운 진안생활’ 안내 나서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18일 진안군 산약초 전시관 2층 강당에서 관내 신규전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군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안내를 실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슬기로운 진안생활’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정착에 필요한 군 정책 안내 및 기본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해 선·후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완화와 군 정책정보 활용으로 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마을 이해와 갈등 해소’라는 소양교육(강사 박후임, 진안군 상생멘토)을 시작으로 진안군 세제 및 행정지원 현황, 주택 또는 농가주택 매매 법률관계, 건축 인허가 절차와 방법 등 실질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진안군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정확하고, 군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만족도를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사항 점검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무주군 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제3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들이 반드시 방문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일부를 직접 찾아가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으로 내 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현황을 찾아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사업장에 관한 주민 의견도 수렴하며 합리적 운영방안과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차에서 의원들은 하천부지에 조성된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현장이 삼승점수에 노출돼 계획한 대로 화

단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비용부담을 우려했다.

이러 의원들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출렁다리와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물이 금강버섯길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부남면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기를 당부했다.

18일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키움센터, 만다키움센터를 비롯해 적상산 머무와인동굴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사업장에 관한 주민 의견도 수렴하며 합리적 운영방안과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정소식지 발전 방향 모색

통신원 대상 워크숍 개최

진안군은 17~18일까지 군정소식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통신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군정 소식지 통신원들은 관내 11개 읍·면의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글로 작성해 전국의 독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통신원들은 17일에는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강릉시 관계

자들과 함께 강릉시민기자단이 주도하는 시정소식지 월간 ‘강릉플러스’와 계간지 ‘슬하 강릉’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진안군정소식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매월 11,000부를 발행하는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소식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첫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글을 쓰고 사진까지 찍어 향유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주인공인 소식지로 성장하고 있다.

양기본 편집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타 지역 소식지 사례를 공부하고 글쓰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향유들간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은 A4 사이즈 책자형으로 매월 지역 주민과 전국의 향유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구독은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응능력 강화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17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장수군청 등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2023년 하반기 긴급구조통제단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협력관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발생 대비 소방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구조통제단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현장대응능

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또한, 협력관 협의회는 지난 9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38호)’이 일부 개정되며 긴급대응협력관의 업무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가 신설되었으며,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개정되어 협

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게 되어 유관기관 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도상훈련은 장수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장수군청·장수경찰서·한국전력공사 장수지사·장수군보건 의료원·KT 전주지사 등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해 지진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대형화재 발생이라는 가상상황을 설정해 △긴급구조통제단 대책 발표 △지원기관·단체 대책 발표 등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성료

진안군자율방범대연합회(회장 고명수)는 18일 문체체육회관에서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범죄예방경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전춘성 군수, 경세광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김민규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및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식도 함께 가져 군민과 함께하는 자율방범연합회의 면모를 뽐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를 중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까지 진안군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범죄 예방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명수 회장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애쓴 대원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대원들이 더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진안군은 18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관내 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공연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양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형극단이 공연을 희망하는 각 시군으로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한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순회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따로와 심술통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 격차 없이 경험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관객으로 참가한 아동들은 공연 시간 내내 이야기에 집중하며 웃음을 터트리며 등 적극적으로 인형극 공연을 즐겼다.

/진안=우태만 기자